



박소현의 섹.시.토.크

K의 남편이 잠자리에 심드렁해진지도 1년 정도 되었다.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부부는 등을 돌린 채 각자 가장 편한 자세로 잠드는데 얼증하고 있었다. 키스를 해 본 게 언제였는지, 만족스런 잠자리를 해 본 것도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무엇보다 가장 기억나지 않는 건, 남편의 열정적인 표정과 행동이다.

K가 ‘우리 너무 안 하고 사는 거 아니?’하고 한 마디 던지면 그때야 ‘그럼 하면 돼지.’하고 남편이 슬그머니 옷을 벗으면서 시작되는 잠자리는 예전의 열정이나 흥분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는 딱 8년차 부부다운 심드렁한 방어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남자들은 손가락 들 힘만 있어도 잠자리를 밝힌다고 하건만 실제 살아보니 그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남들도 다 그렇게 산다고 치부해 버리면 그만이지만, 앞으로 삼십년도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아득하다. 뭔가 방법이 없을까? K는 자신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을 것 같아 인터넷 세상으로 답을 구하려 나섰다.

그녀는 주부들이 주로 가는 사이트 게시판에

질문을 던졌다.

‘남편과의 잠자리가 심드렁합니다. 저도 문제지만 남편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횡수도 너무 줄었고 해도 별로 좋은지도 모르겠어요. 일단 남편에게 성적 호기심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남



편이 성적 호기심을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집에서 가슴이 좀 드러나 보이는 윗옷에다 미니스커트를 입으세요. 물론 다리가 이뻐야 한다는 전제하에.’, ‘야한 속옷이 최고예요. 야한 속옷

을 슬쩍슬쩍 보여주세요.’, ‘가터벨트를 사세요. 우리나라 남자들은 가터벨트에 대한 환상이 있어요.’, ‘일단 살부터 좀 빼시죠.’

K는 조언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가슴에 새겼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늘어난 옆구리

너무 안하고 사는거 아니?

가터벨트 착용한 아내의 변신

새로운 애인으로 생각해 줄까?

살을 빼는 일인 것 같다. 그러고보니 그녀의 허리가 남편 양손에 꼭 잡히던 무렵에는 잠자리가 지금 같지 않았던 것 같다. 마르고 뽀록뽀록 입고 있는 속옷들도 새로 장만해야겠다. 두 눈 꼭 감고 가터벨트도 하나 사보자. 남편이 미쳤나고 할까 무섭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좋아할지도 모르겠

등 돌린 남편 성적 호기심 살리기

다 싶다. 이런저런 생각을 정리하고 다음날이 되었다. K는 혹시 하룻밤 사이 새로운 댓글이 달렸나 싶어 글을 올린 사이트를 찾았다. 한 개가 더 달려있었다.

‘위에 적혀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한 두 번은 좋을지 모르죠. 하지만 약발 얼마 안 가요. 남편이 옛날처럼 흥분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잠자리 상대가 바뀌는 거지요.’

뒤통수를 한 대 맞는 기분이었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 현실적인 입찰인 것도 부정할 수 없다. 문득 서글퍼졌다. 인간은 왜 이따위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걸까?

그런데 모든 것이 부질없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새 K는 속옷 사이트를 뒤지고 있었다. 남편의 만족도와 상관없이 그녀 역시 가터벨트를 한번쯤은 착용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남편 때문이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한번쯤 변신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듯 싶다. 아무도 몰래 노는 여자인척 해 보고 싶은 욕망이 평범한 전업주부에게도 도사리고 있는 법이니까. 이런 변신덕분에, 남편이 나를 새로운 애인쯤으로 생각해 줄지도 모르고 말이다. <연애칼럼니스트>

검색절정 키워드

검색

美 ‘리먼 파산’... 한국 금융시장 직격탄

‘인생 대박의 꿈’ 로또 당첨조작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 진수희 의원은 17일 국회 브리핑에서 로또복권의 판매 정보를 담은 시스템간 데이터가 불일치하고, 당첨번호가 확정된 뒤 복권판매 금액 산정이 이루어지는 등 로또복권 운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 의원의 주장에 대해 나눔로또측은 “제기된 조작의혹 내용은 사업운영절차와 시스템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는 거의 음모론 수준이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티즌은 “살 때 기대했던 마음이 바보스럽다. 정부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켜보겠다.”, “검찰이 조사에 나서야한다.” 등의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국발 금융위기도 뜨거운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계 투자은행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과 세계 최대 보험사 AIG가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RB)의 자금 지원을 받으며 간신히 파

산을 모면하는 등 미국 금융위기가 고조되면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등 국내 시장이 직격탄을 맞았다.

어수선했던 국내의 분위기 속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준 이들도 있었다. 프랑스의 AS 모나코로 새 동지를 튼 ‘축구천재’ 박주영은 이적 후 첫 경기인 로리랑전에서 1골 1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자신의 진가를 유감없이 발휘했다. 박주영은 또 17일 AS 모나코와 홈페이지에 공개된 인터뷰 동영상에서 태권도복을 입고 등장해 네티즌의 눈길을 끌었다.

‘승장’ 이승엽의 괴력도 화제가 됐다.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이승엽은 16일 요코하마와의 원정경기에서 일본 진출 후 처음으로 3연타석 홈런을 때려내며 검색어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일본 언론도 이승엽의 3연타석 홈런을 대서특필하면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로또복권 당첨조작의혹을 제기한 한나라당의 진수희 의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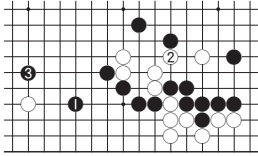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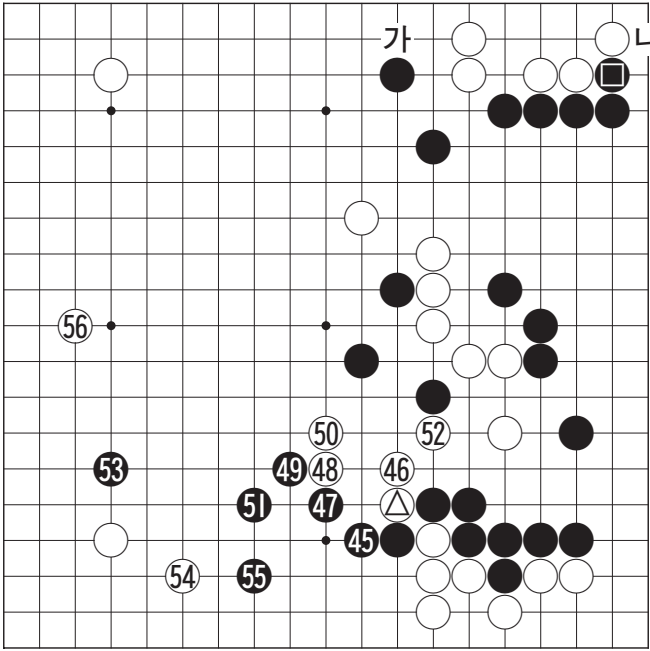
제17회 光日盃

광주·전남 지역비특대외

고지식한 응수

개인전 결승전 4보 (45~56)

白 박광수 5단 黑 김영수 5단 (포스코) (전남교사회)



참고도

를 넘겨준 수로 대실착이다. 우상귀 백은 손을 빼더라도 ‘가’와 ‘나’가 맞보기로 살아 있다. 백이 귀중한 선수를 잡아 ㉠로 끊어 와서는 흑이 좋았던 흐름이 일시에 바뀌고 만다. 김영수 5단 쓴맛을 다시며 흑 45로 늘었으나 백 52까지

전보에서 흑 ㉠로 짓혀이는 것은 끝내기로는 큰 곳이나 중앙에서 주도권 싸움인 한창인 이때에는 선수를 넘겨준 수로 대실착이다. 우상귀 백은 손을 빼더라도 ‘가’와 ‘나’가 맞보기로 살아 있다. 백이 귀중한 선수를 잡아 ㉠로 끊어 와서는 흑이 좋았던 흐름이 일시에 바뀌고 만다. 김영수 5단 쓴맛을 다시며 흑 45로 늘었으나 백 52까지

되고보니 쫓기던 백 대마가 거꾸로 흑 몇점을 포위하며 평평거리는 세력을 구축하게 되었다. 흑 51로 호구선 수도 고지식한 수. 이 수로는 ‘참고도’의 흑 1로 두고 백 2로 지킬 때 3로 귀를 협공하여 중앙에서의 손실을 좌하귀에서 보충해야 했다. 실전도 흑 53으로 협공하기는 했으나 백 54가 선수가 된 것이 뼈아프며 ‘참고도’와는 천양지차가 있다. 박광수 5단, 백 56으로 협공하며 초반의 난조를 극복하고 완연히 페이스를 찾은 모습이다.

<오규철 9단·본보 바둑 해설위원>

대한주택공사 광주전남지역본부

EL DORADO RESORT JINHA EL도라도리조트

리빙 센스

다이어트 식단 짜기

◇식품 교환표 이용

식품교환표는 우리가 자주 먹는 음식들을 열량,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등의 양이 같도록 분류해 놓은 것이다. 각 음식의 칼로리를 쉽게 알 수 있고 그 음식과 바꾸어 먹을 수 있는 같은 칼로리, 같은 영양소의 음식도 한눈에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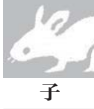
◇식단의 기본 형태 결정

다섯 가지 기초식품군을 모두 포함시켜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를 얻을 수 있도록 식단을 구성한다. 다이어트를 위해 식사량을 줄이면 배가 쉽게 고파질 수 있으니 식품교환표를 보고 포만감이 큰 식품을 선택해서 식단을 짜는 것이 요령이다.

◇음식 종류 결정

주식을 먼저 결정한 후 국의 종류와 조리법을 정하고, 기호에 따라서 좋아하는 음식과 조리법, 알맞은 재료를 택한다. 칼로리가 낮으면서 포만감을 주는 채소는 매 끼니마다 빠지지 않도록 넣는 게 좋다.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9월 19일(음 8월 20일 壬戌)



子

36년생 정면 돌파가 최상의 방책이다. 48년생 어려움은 잠시 이니 인내하며 기다리라. 60년생 너무 큰 기대는 하지마라 작은 것에 기쁨이 있다. 72년생 천리 길도 한걸음부터 해야. 84년생 계속 전진하면 좋은 길이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2,26



丑

37년생 먼저 마음의 문을 열어라 된다. 49년생 친구는 언제나 반가우니 친구를 찾아보라. 61년생 걱정은 걱정을 하는 자만 갖는다. 73년생 가정불화는 사소한 것에서 시작하니 서로서로 양보하라. 85년생 구슬수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1,27



寅

38년생 오늘은 안전운전을 해야 하리라. 50년생 남을 위해 봉사하라 일석이조가 있으리라. 62년생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 신사를 계획하라. 74년생 인생은 연줄이다 멋지게 보내라. 행운의 숫자 : 18,30



卯

39년생 걱정을 버려라 걱정은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51년생 지혜롭게 지내고 정도를 걸으면 마음은 봄날이다. 63년생 온 식물이 평안하다. 75년생 사소한 일이 오히려 중요하다. 행운의 숫자 : 14,33



辰

40년생 집 안과 밖에서 좋은 소식이 들린다. 52년생 꿈을 크게 갖고 노력을 하면 가능성이 보일 것이다. 64년생 돈이 생기거나 바로 술 구멍이 생긴다. 76년생 수하인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행운의 숫자 : 20,28



巳

41년생 앞날살을 지내면 나간 돈을 불러들인다. 53년생 나쁜 일이 쫓아 다닌다. 주의해야 할 것이다. 65년생 귀인은 가까운 곳에 있다. 77년생 인력을 베풀면 자신에게 돌아온다. 행운의 숫자 : 12,35



午

42년생 식복이 넘치나 조심은 해야 할 것이다. 54년생 멀리 간 친구에게서 소식이 온다. 66년생 새 문서로 복잡한 일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라. 78년생 과거가 문제를 가져 올수도 있으니 다시 한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1,45



未

43년생 듣기 좋은 말은 독이 되니 주의하여 들라. 55년생 다투면 손해로 양보하면 득이 된다. 67년생 지금은 고통이지만 내일은 행복하다. 79년생 급할수록 돌아가라 서두르면 실패한다. 행운의 숫자 : 02,44



申

44년생 자녀의 주변도 살펴봐라. 자녀가 어려울 수도 있다. 56년생 돈단속을 잘하면 걱정은 없다. 68년생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내라 마음이 현란하다. 80년생 오늘은 평화로운 하루이다. 행운의 숫자 : 23,25



酉

45년생 편안한 하루이니 큰 득은 없다. 57년생 결정은 내일로. 손재가 보인다. 69년생 오래 동안 막힌 일이 저절로 해결된다. 81년생 초고후안 처음은 고생이었으나 나중은 편안하다. 행운의 숫자 : 03,43



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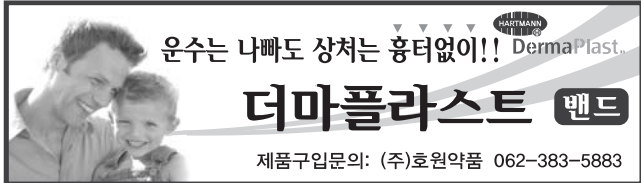
46년생 계획했던 일이 이루어지리라. 58년생 마음을 비우고 지내면 채워지리라. 70년생 조상의 묘를 찾아보고 선친의 가르침을 되새겨 보라. 82년생 마음이 갈광질광 이다. 심신의 안정을 찾아야 할 터. 행운의 숫자 : 24,16



亥

47년생 활기찬 하루이니 용기 백배 하리라. 59년생 가까운 이웃과 좋은 하루를 보내면 길사가 생길 수다. 71년생 마음의 여유를 가져보라 어려운 일도 풀리리라. 83년생 좋은 웃고 인기 즐거운 날이다. 행운의 숫자 : 17,31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굿모닝 잉글리쉬 <1149>

I guess that's what it is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A : How is John handling his new roommate?  
B : Not too good.  
A : I thought that might happen. John is used to living by himself.  
B : Yeah, I guess that's what it is.

A : 존이 새로 맞은 룸메이트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B :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는 않아요.  
A : 그럴 것이라고 나는 생각했었지. 존은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 있었든.  
B : 그래요, 제 생각에도 그런 것 같아요.

\* handle : ~를 대하다  
\* might = probably  
\* by oneself = 혼자서  
\* what it is = 본질 그 자체, 바로 그 점

오하오우 니혼고 <1149>

また腕(うで)が上(あ)がったんですね  
솜씨가 더 늘었군요

A : 今日もお菓子(かし)作(つく)ってきました。  
B : あ、美味(おい)しい。また腕(うで)が上(あ)がったんですね。  
A : え、頑張(がんば)りました。

A : 오늘도 과자 만들어왔어요.

B : 아 맛있어요. 솜씨가 더 늘었군요.

A : 네, 열심히 만들었어요.

腕(うで)が上(あ)がる:직역하면 “팔이 올라가다”지만

腕(うで)는역량 실력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다른뜻으로 “주량이 늘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니하오 쑹구위 <226>

你的书在哪里?  
당신의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A: 你的书在哪里?  
nǐ de shū zài nǎlǐ  
니 데 슈 자이 나리

B: 在书包里。  
zài shūbāo lǐ  
자이 슈바오리

A: 你的书包在哪里?  
nǐ de shūbāo zài nǎlǐ  
니 데 슈바오 자이 나리

B: 在桌子上。  
zài zhǔzishàng  
자이 쑹즈시상

A: 당신의 책은 어디에 있습니까?

B: 책가방 안에 있습니다.

A: 당신의 책가방은 어디에 있습니까?

B: 책상 위에 있습니다.

书包 [shūbāo]: 책가방

桌子 [zhuōzi]: 책상

한자 이야기 <866>

改過遷善(개과천선)  
고칠 개, 허물 과, 옮길 천, 착할선

개과천선(改過遷善)은 허물을 고쳐서 착하게 된다는 뜻으로, 잘못 들어선 길을 버리고 착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겠다는 결의를 비유한다.

진(晉)나라 혜제(惠帝) 때 양흥지방에 주처(周處)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열 살 때 때 수염이던 아버지를 잃고 하릴없이 방탕한 생활을 보냈다. 하지만 몸이 강인하고 힘이 역세여 꺾일까만 사람을 두드려 패는 포악한 사람이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남산의 호랑이, 장교(長橋)의 교룡(蛟龍)과 더불어 삼해(三害)라고 불렀다. 이윽고 주처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새사람이 되겠다고 결심을 하였다. 그는 마을 사람들의 환심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무릅쓰고 호랑이와 교룡을 죽이고 마을로 돌아왔으나 아무도 반갑게 맞아주는 사람은 없었다.

이에 주처는 마을을 떠나 동오(東吳)에 있는 육기(陸機)를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자, 육기는 “굳은 의지를 지니고 지난날의 과오를 고쳐서 새사람이 된다(改過遷善)면 자네의 앞날은 무한하네”라고 격려를 해주었다. 이에 용기를 얻은 주처는 이후 10여 년 동안 학문과 덕을 익혀 마침내 학자가 되었다고 한다. (晉書, 本傳) 공자는 ‘허물을 고치지 않는 것이 더 큰 허물이며, 허물을 알았으면 고치기를 꺼리지 말라’고 말한다.

<한여원(韓睿嫺)>

조선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 230-7353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광주 글로벌 외국어학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광주중국어학원(상무지구 금호대우A 앞)>

☎ 383-1605